

새만금 잼버리 막바지 최종 점검 '총력'

김관영 지사 "6년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 세계에 전북 홍보·후손에게 자산 남길 큰 기회" 잼버리 연계 관광 활성화·전북형 관광콘텐츠 발굴·호우 피해복구·폭염 대응 등 주문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8일 간부회의를 잼버리 총 점검회의로 진행하며 새만금 잼버리 개최 막바지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주요 행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잼버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서울에서도 스카우트복을 입은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며, 전국적으로 잼버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열심히 준비한 행사이고 전 세계에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의 큰 기회를 잘 살려 후손들에게 자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자"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배수, 폭염, 해충 등 모든 분야를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도지사인 저부터 영지에서 아영하며 원활한 행사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 실국장과 청원도 각자 위치에서 모든 역할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기념숲 조

성, △17개국 7,726명이 참여하는 사진·사후 관광 프로그램, △29개국 1천명이 참여하는 HoHo(Home Hospitality) 프로그램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등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잼버리 이후 전북 관광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 스토리텔링, 야간관광, 신기술체험 산업관광, 워크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우리도에 적합한 관광콘텐츠도 결합해 전북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호우 피해복구와 관련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집행해 복구활동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설현장·농어촌·수해복구 등에서 온열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부랐다.

축사·양식장, 농작물 피해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행사를 치르면서 동시에 8월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 활동에도 각 실국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지난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조용철 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위원에게 전북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 도움 되도록 최선"

전북도, 조용철 전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성과 창출·신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기여

전북도는 지난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조용철 전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특화사업 추진, 연구개발(R&D) 역량강화,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 1위(2022), 추가예산 확보(28억), 전북테크비즈니스 운영 안정화 및 자립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산업별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수요조사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나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전북도의 연결고리로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조용철 전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도내 기업 성장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도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린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합상황실 운영

조직위원회·잼버리운영팀·운영요원 등 유관기관 인력 포함... 총 192명 지원 대회기간 동안 각종 신고 접수·처리, 사건·사고·비상상황 등 신속 대응 목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종합상황실을 지난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잼버리장 아영지 내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세계잼버리가 전 세계 청소년들과 지도자 등 약 4만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행사 관련 현장을 상시 파악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상황실은 행사의 중요성과, 정부와 민간 조직과의 협업을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잼버리운영팀(야영장), 세계스카우트연맹(월드이벤트 부장)이 공동 실장을 맡고, 조직위원회 및 잼버리운영팀의 각 본부장이 반장을 맡아 총괄운영반, 대외협

력반, 행사운영반, 행사지원반, 시설관리반, 안전관리반 등 분야별 6개 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총괄운영반을 중심으로, 행사 기간 종합상황실 대표전화를 통하여 각종 불편사항 등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현장에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처리되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주요 일정 및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대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되도록 하는 등 상황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에는 조직위원회와 잼버리운영팀 직원 뿐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간 범죄 예방(Safe from Ham)을 위한 세계스카우트연맹 담당자와, 행사 기간 종합상황실 내 근무를 위해 선발된 국제 운영요원(IST)도 같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경찰, 소방, 기상, 식음료 등

각 분야별 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인력도 함께 상황실에 파견되어 해당 분야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해당 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업무를 수행하며, 신고 접수, 근무자 간 소통 등의 과정에서 필요 시 통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영어, 스페인어 등이 가능한 국내 자원봉사자도 별도로 선발하여 종합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도록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공동조직위원회 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였다"며, "종합상황실을 주축으로 행사 전반 상황을 관리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산업평화 모범 사업장·대상 공모... 내달 14일까지 신청

전북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과 상생 분위가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노동자·사용자, 노동조합·사용자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공모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룩한 도내 소재한 사업장 중 선정하며, 산업평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상자는 관할 시·군 노사협력 담당부서, 전북경영지총협회,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 상공회의소, 한국·민주노동 전북지역본부, 노동·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 기업체 대표(산업평화대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추후 현지 조사와 전북도 노사민정 협의회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개소(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와 산업평화 대상 12명(개인 6, 단체 6)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혜택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1억 1,500만원, 중견기업 2억 2,000만원, 중소기업 3억 2,000만원, 총 7,100만원의 재정지원이 주어지며, 산업평화 대상은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경찰·소방서 설치... '행사장 치안·안전 책임진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치안과 안전 등을 책임질 경찰서와 소방서가 설치됐다.

지난 28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잼버리경찰서는 아영장 등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관 200여명의 근무 관리 및 현장 지휘를 담당한다. 또 스마트 사격과 가상현실(VR),

드론·순찰차 등 10여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찰 업무를 홍보한다.

강홍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개서식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경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잼버리소방서는 화재 진압 및 풍수

해 대비, 폭염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개·폐역식과 문화교류의 날 등 많은 인원이 몰리는 행사 때는 인과 관리에 주력 방침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빈틈없는 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가상공간에서 힌다리새우 양식 체험

전북도-핀웨이브, 힌다리새우 양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나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미래형 새우양식 스마트팜 인재육성 등 수산양식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힌다리새우 아쿠아팜 교육·체험 콘텐츠에 참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로 추진된 '2023년 메타버스·XR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지원사업'의 지역특화분야(농생명ICT)에 (핀웨이브 기업)이(전주시 소재) 수산기술연구소와 함께 선정돼 총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콘텐츠는 지난 6월부터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완성한 뒤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콘텐츠는 실제와 동일한 힌다리새우 양식 아쿠아팜을 3D로 모델링한 메타

버스 공간으로 제작하고, 아영인·학생 등은 이곳에 접속해 교육·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공간 콘텐츠이다.

가상공간 내에서는 접속자가 양식장 내부 제어시스템을 조작하고 수조 내부 새우의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서재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최근 메타버스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수산양식산업까지 메타버스 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가상의 아쿠아팜에서 새우양식을 교육·체험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로 새우양식에 관심있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우양식 스마트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군산대 2학기 원광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표현력·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가 북에 말살되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목과 민생(노양과) 학원 교수 역임
- 한국수재지·승변(외) 전국회합
- 전주세인트앤서니교회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스킬 인기 강사'
- KBS TV 아슬아슬, MBC TV, JTBC, EBS 출연 및 생방송
- 스포츠 일일리포트
- 웹 생방송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시 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리뷰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 "스피치노하우" 등

전담교수 김양욱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X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